

# 서양 고지도에 표현된 제주도

## Jeju Island in Western Antique Maps

오상학 Oh, Sang-hak\*

**요약 :** 서양에서 제주도의 존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16세기 이후이다. 이 시기 서양과 동양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인식하게 되고 지도에도 제주도가 한반도의 끝 부분에 그려진다. 그런데 이 시기 제작된 몇몇 지도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해당하는 곳에 포르투갈어로 ‘도적섬(Ilhas dos Ladrones)’이라 표기되어 있다. 이후 17세기에 접어들면서 제주는 ‘퐁마도(I. Fungma, Fongma)’로 표기된다. 1655년 중국에 선교사로 왔던 마르티니의 『중국지도첩』에 처음 등장한다. 서양인이 명명한 ‘퐁마도’는 당시 지식 정보의 네트워크를 고려한다면 중국 지도의 지명을 영문으로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7세기에는 ‘퐁마도’와 더불어 ‘켈파트(Quelpart)’가 등장한다. ‘켈파트’라는 명칭은 제주도에 표착했던 하멜이 자신의 보고서에 제주도를 ‘켈파트’라 표기했고, 책으로 간행되면서 제주도가 ‘켈파트’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켈파트’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지명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지금의 ‘제주도’는 20세기 이후에야 나타난다.

**주제어 :** 도적섬, 마르티니, 제주, 퐁마도, 켈파트

**Abstract :** The first historical reference to Jeju Island in Europeans comes in the 16th century. As trade between Europe and the Orient including Asia became more active in this era, the country of Joseon brought into existence to Europe along which Jeju Island emerged in cartography as a southernmost tip of the Korean peninsula. Interestingly, some maps made during this period referred to Jeju Island and the southern coast of Korea, in Portugese, as Ilhas dos Ladrones, or “Thieves’ Islands”. At the start of the 17th century Jeju Island was also marked as “Fungma (or, Fongma), which appears for the first time in the ”Atlas of China“ of M. Martini who arrived in China as a missionary in 1655. It can be considered that, when taking into account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network of the times, island ”Fungma“ shown on Western maps is romanized from Chinese name for Jeju. In the late 17th century the name “Quelpart”, together with “Fungma”, became known among Europeans, which indicates a trading vessel of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H. Hamel, a Dutch seaman, who was shipwrecked on a voyage to Japan and remained on the isle, described Jeju as “Quelpart” in his report, Hamel’s Journal, which was subsequently published, thereby making Jeju Island to be widely known as the name of “Quelpart”. “Quelpart”, having enjoyed so long as a tradition of use by Western cartographers, was handed down to the early 20th century as a typical name standing for Jeju Island.

**Key words :** I. Fungma, Ilhas dos Ladrones, Jeju Island, Martini, Quelpart.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ohsanghak@jejunu.ac.kr).

## 1. 머리말

제주도는 동북아시아의 해상에 위치한 섬이다. 서쪽으로는 중국, 북쪽으로는 한반도, 동쪽으로는 일본 등의 지역과 연결된다. 동북아 해상의 중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제주도는 오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주변 지역과 교류를 이어왔다. 이러한 교류에는 경제적, 상업적 목적의 교역뿐만 아니라 군사적, 정치적 침략과 지배 등도 포함한다. 아울러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표류도 교류의 일부분을 이룬다. 이러한 교류는 제주인의 주변 세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고 역으로 타지인의 제주도 인식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제주도는 고려시대 이전 고대에 탐라국이라는 독립된 국가를 건설하여 주변국과 교류했다. 고려에 복속된 후로는 고려의 행정체계에 포섭되어 독립된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고려의 행정적 지배는 변방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견고하지는 못했다. 몽골이 고려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면서는 제주도는 100년간 몽골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기도 했다. 이 시기의 제주도는 몽골의 중요한 목마장으로 성장하고 몽골의 일본 침략의 전진기지로 중시되었다. 몽골제국의 네트워크 속에서 제주도는 ‘탐라’라는 명칭으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고려왕조가 끝나고 조선왕조가 개창되면서 제주도는 행정적으로 조선에 완전히 편입되면서 직접적인 통치를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제주도에 대한 주변 세계의 인식은 지도에 반영된다. 서양이나 동양에서 제작된 고지도 속에 과거 제주도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는데, 여기에 표기된 지명이나 제주도의 모습은 과거 지역 간 교류의 흔적과 기억이 된다. 서양의 고지도에 나타나는 제주의 다양한 지명은 서양인들의 경험과 기억을 반영한다. 초창기 주어진 정보가 제한적일 때는 제주도의 모습은 왜곡된 형태를 띤다. 이후 동아시아에서 활동했던 서양 선교사, 상인, 탐험가들의 새로운 정보가 서양으로 유입되면서 제주도의 왜곡된 이미지는 점차 개선되어 간다.

서양 고지도에 표현된 제주도에 관해서 일부 선학들의 연구가 있다. 먼저 서양의 해도에 표현된 제주도를 고찰한 한상복의 선구적인 연구를 들 수 있다.<sup>1)</sup> 라 페루즈(La Peruse), 브로우튼(Broughton), 벨처(Belcher) 등의 탐험으로 제작된 몇 종류의 해도에서 제주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최초로 검토하였다. 최서면은 간략한 논고에서 제주가 표현된 서양의 고지도 목록을 제시하면서 도적섬, Fungma, Kiecheu 등을 주요 지명으로 제시했다.<sup>2)</sup> 박대현은 다양한 서양의 고지도에 표현된 제주의 모습과 명칭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sup>3)</sup> 서양의 해도를 비롯한 지도에서 표기된 제주도 지명을 도적섬, 풍마, 켈파르트, 제주 등의 네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시계열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나 제시된 고지도 사진이 세 장에 불과해 아쉬운 감이 있다.

오일환과 김기수는 18세기 서양 고지도에 표현된 제주도의 형태와 명칭표기를 고찰하였다. 서양 고지도 속의 제주도 명칭을 풍마(Fungma), 켈파르트(Quelpaert), 도시명 표기, 풍마와 켈파르트 표기, 기타 표기 등으로 기존의 연구보다 다양한 지명 표기의 유형을 파악하여 정리했다.<sup>4)</sup> 보다 최근에는 서양 고지도에

1) 한상복, 1988, 『해양학에서 본 한국학』, 해조사, 95-99.

2) 최서면, 1988, 『西洋地圖에 나타나는 濟州島』, 제주도연구 5, 19-23.

3) 박대현, 2001, 「서양지도에 나타난 제주의 모습과 그 명칭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 19, 119-167.

나타난 제주의 지명과 형태를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통시적으로 고찰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의 위치와 형태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여 특징을 파악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서양 고지도에 표현된 제주도의 이미지와 지명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켰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성과가 있다. 그러나 지명의 유래와 지도의 계보, 동서양간 지리정보의 흐름에 대한 파악이 미흡한 한계도 지니고 있다. 현상에 대한 인과관계의 규명보다는 현상과 패턴에 대한 기술에 치중한 느낌을 준다. 서양에서 제작되는 고지도에 동아시아에 위치한 제주도가 표현되는 것은 오랜 지식 교류의 결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서양에서 제작된 고지도를 통해 제주도가 어떻게 표현되고 인식되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서양의 고지도에 제주의 지명과 이미지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재현되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존하는 서양의 고지도 가운데 제주도가 그려진 것을 대상으로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지명과 이미지의 변천을 파악할 것이다. 동양과 서양의 지리 정보의 교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양에서 제작된 지도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 2. 16세기 서양 고지도의 제주도



도 1. 린쇼텐의 아시아지도(1596년), 원각사성보박물관 소장

서양의 고지도에 제주도가 처음 나타나는 시기는 16세기 후반이다. 1596년 랑그랜(Michael Florent van Langren)의 지도에서 단초를 볼 수 있다(도 1). 이 지도는 네덜란드 지도학자 린쇼텐(Linschoten)의 『동양안내기(Iterario, voyage ofte schipvaert Oost ofte Portugales Indien)』에 수록된 아시아지도로 랑그랜이 판각한 것이다.

지도의 한국 부분을 보면, ‘꼬레아 섬(Ilha de Coreia)’, ‘도적섬(I Dos Ladrones)’이라 표기되어 있다. 일본과 한국 사이의 제주도로 추정되는 섬에도 ‘Corea’라 표기되어 혼란된 모습을 띠고 있다. ‘I Dos Ladrones(도적섬)’은 마젤란이 1521년 지금의 마리아나 제도를 발견하고 붙인 이름이다. 이후 1668년 예수회 선교사들이 당시 스페인의 섬정자인 오스트리아의 마리아나를 추모하여 마리아

4) 오일환·김기수, 2004, 「18세기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우리나라와 제주도」, 문화역사지리 16(1), 113-122.

나 제도(Las Marianas)로 개명되었다. 도적섬이라는 명칭이 ‘COREA’라는 명칭과 같이 표기된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다.

1595년 테이세라의 지도에서도 제주도 부근의 섬을 ‘도적섬’으로 표기했다(도 2, 도 3). 이 표기는 1635년 요안 블라우(Joan Blaeu)의 『동아시아지도』, 1630년 키에르(Peter Van Den Keere)의 『중국지도』와 1652년 상송(Nicolas Sanson)의 『중국지도』, 1660년 피에르 뒤 발(Pierre Du Val)의 『아시아지도』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이러한 표기는 하멜 표류기가 발행된 이후 서양의 지도제작자들이 제주도를 ‘I. Quelpaert’로 표기하기 전까지 풍마(Fungma)라는 표기와 함께 종종 사용되었다.<sup>5)</sup>

테이세라(Luis Teisera, 1564~1604)는 수대를 거친 지도제작 가문에서 성장하여 일찍부터 지도제작에 발을 들여 놓았다. 그는 바르부다(Luis Jorge de Barbuda)와 같이 포르투갈의 예수회 선교사로 스페인 왕국을 위해 일했는데 1569년 스페인의 지도제작자로 임명되기도 했다. 그는 1592년 일본지도를 제작했는데 이 지도가 1595년 ‘일본섬 묘사도(Iaponia Insulae Descriptio)’라는 제목으로 오르텔리우스의 『세계의 무대』 제5증보판으로 간행되었다. 이 지도는 예수회 선교사들로부터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도는 유럽인이 최초로 정확하게 일본을 묘사한 것으로 반세기 이상 일본의 표준 지도로 자리잡게 된다.<sup>6)</sup>



도 2. 테이세라의 일본도(1595년)  
오르텔리우스의 『세계의 무대』 제5판에 수록됨



도 3. 테이세라의 일본도(1595년) 세부도

한국을 동아시아나 동인도와 같이 대륙의 일부로 표현하는 다른 지도와 달리 테이세라의 지도에서는 한국을 대륙에서 분리해 독자적인 형태로 그렸다. 비록 한국을 반도가 아닌 남북으로 길쭉한 섬으로 표현했지만 주변 지역과는 다른 독자적인 존재로 부각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명은 ‘COREA INSVLA’ ‘Corij’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한반도의 남쪽에는 제주도로 보이는 섬에 ‘도적섬(Ilhas dos ladrones)’이 표기되어 있고 한반도의 끝에도 ‘도적곶(Punta dos Ladrones)’이라는 표기가 있다. 반도의 북부에도 조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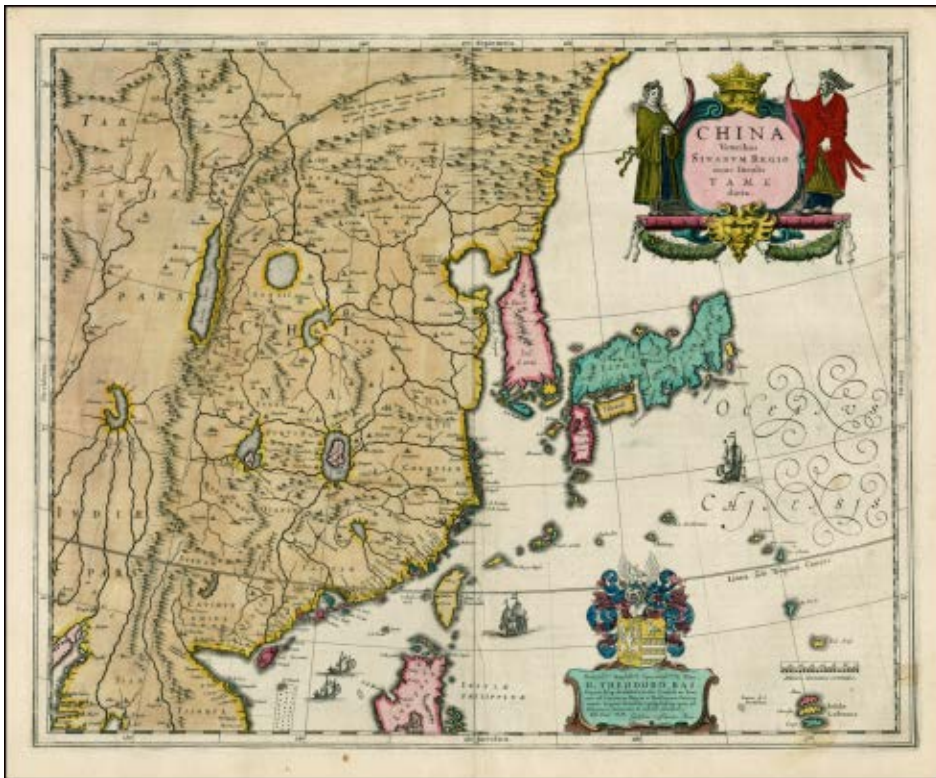
5) 국토지리정보원, 2007, 『외국고지도에 표현된 우리나라 지도 변천과정 연구』, 53-54.

6) 서울역사박물관, 2004, 『Corca, 코리아』, 204-205.

나타내는 ‘Tauxem’이 표기되어 있다. 테이세라의 일본지도는 1655년 마르티니의 지도가 나오기까지 일본 지도의 표준으로 인식되었다. 이후 1606년에 출판된 메르카토르-훈디우스의 지도첩에 수록되었는데 지도의 해안선(의) 윤곽과 내용은 동일하다. 이 지도에도 제주도에 해당하는 섬에는 ‘도적섬(Ilhas dos ladrones)’으로 표기되어 있다.

### 3. 17세기 서양 고지도의 제주도

17세기에도 제주도를 도적섬(I de Ladrones)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이어졌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는 1642년 제작된 블라우(Joan Blaeu)의 중국지도에서 볼 수 있다(도 4, 도 5). 섬으로 표현된 우리나라에는 ‘코라이 섬(Ins Corai)’과 ‘Tausem’이라는 일본식 발음의 국명 표기가 수록되어 있다. 내부에는 산지의 표시가 있고, 서해쪽 해안에는 건물을 그려 도시임을 표현했다. 남쪽 해안에는 여러 섬들이 그려져 있는데, 도적섬(I de Ladrones)이라 표기했다. 제주에 대한 초기 인식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도 4. 블라우의 중국지도(1642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도 5. 블라우의 중국지도(1642년) 세부도

17세기에는 도적섬으로 표기되던 제주도의 지명이 'Fungma'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탈리아 태생의 선교사 마르띠니(Martino Martini, 1614~1661)의 역할이 컸다. 마르띠니는 1643년 중국에 도착 1650년까지 체류하면서 포교활동과 더불어 중국의 지리를 연구했다. 나홍선의 『광여도』와 주사본의 중국지도를 입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광여도』에는 조선의 지도를 바탕으로 제작된 조선지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해안선의 윤곽은 과장되어 있지만 분명한 반도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이 섬이 아닌 반도국가임을 분명히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 6. 마르띠니의 중국전도(1655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마르띠니는 중국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럽에 머무는 동안 중국지도를 제작하였다. 그는 블라우 가의 요안 블라우(Joan Blaeu)와 함께 1655년 『중국지도첩(Novas Atlas Sinensis)』을 간행했다.<sup>7)</sup> 이는 블라우의 『세계신지도첩(Theatrum Orbis Terrarum)』 제6권에 수록되어 널리 소개되었다. 『중국지도첩』에

는 중국전도를 비롯하여 北京, 山西, 陝西, 山東, 湖南, 四川, 湖廣, 江西, 南京, 浙江, 福建, 廣東, 廣西, 貴州, 雲南 등 北京, 南京을 포함한 15성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일본도가 첨가되어 있다. 조선도가 아닌 일본도가 추가되어 있는 것이다.

기존연구에서는 마르띠니의 『중국지도첩』은 나홍선의 광여도를 바탕으로 그려진 것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광여도』는 100여년 전 1555년에 제작된 것이라 최신의 지도는 아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마테오리치와 같은 서양 선교사들이 『곤여만국전도』를 비롯한 방대한 서구식 세계지도를 이미 제작했던 때이다. 따라서 100여년 전의 과거 자료보다는 서양 선교사들이 지니고 있던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 역시도 당시 중국에 파견된 선교사들을 접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당시 최신의 자료들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지도첩』에 조선도가 아닌 일본도를 수록했다는 사실도 『광여도』보다는 『곤여만국전도』를 비롯한 보다 최신의 자료를 활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광여도』에는 일본도가 별도로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로 볼 때 일본지도는 마르띠니의 수집 자료로 제작된 것이 아니고 블라우가 직접 제작한 것을 추가로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도 7. 블라우의 일본지도(1655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중국전도의 조선 부분을 보면 국명은 COREA로 표기되어 있고, 팔도의 지명을 중국식 발음에 기초하여 표기하였다(도 6). Hinking(함경), Pingjan(평안), Kingki(경기), Kianguen(강원), Hanghai(황해), Kingxan(경

7) Martini, M., 1655, ATLAS DE LA EXTREMA ASIA.

상), Chungcing(충칭), Ciuenlo(전라)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한반도의 남쪽에는 제주도로 보이는 섬을 크게 그리고 'I. Fungma'라고 표기했다. 압록강(Yalu flu)과 두만강(Quentang flu)으로 보이는 유로가 묘사되어 있고 산의 모습을 그려 산지를 표현하였다. 일본도에 그려진 조선은 중국전도의 것과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도 7). 먼저 나라 이름을 일본도에서는 '꼬레아반도(COREA PENISVLA)'로 표기했다. 이과 더불어 남해안에 더 많은 섬들을 그려 넣었다. 그러나 팔도의 명칭과 압록강, 두만강의 유로, 산지의 표현 등은 동일하다.

무엇보다 마르띠니의 지도에서는 조선의 모습이 이전 지도에 비해 매우 정교해졌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팔도의 행정구역 명칭이 수록되었고 압록강 두만강의 유로가 표현되었으며 한반도의 윤곽도 이전의 지도보다는 실제에 접근하고 있다. 특히 이 지도에는 이전 시기 지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지명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바로 남해안에 그려진 'I. Fungma'라는 지명이다. 지금까지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섬을 제주로 비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한자로는 '豊馬島'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주도가 원나라 때부터 국마장으로 유명했다는 사실을 결부시키고 있다.<sup>8)</sup> 또 한편에서는 '風馬島'라 보고 바람과 말이 많은 제주의 풍토를 연관시키고 있다.<sup>9)</sup>



도 8. 『곤여만국전도』 조선 부분(1602년), 일본 교토대학도서관 소장

8) 박대현, 1996, 『서양인이 본 조선 -조선관계 서양지리지』, 호산방, 16-17.

9) 오일환·김기수, 2004, 「18세기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우리나라와 제주도」, 문화역사지리 16(1), 113-122.



마르띠니의 지도는 중국의 어떤 자료에 근거하고 있을까? ‘Fungma’의 기원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마르띠니 지도의 저본 지도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마르띠니가 선교사 신분으로 중국에 왔던 사실을 고려한다면 당시 선교사들이 이용하고 소장했던 지도들을 일차적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선교사들이 만든 지도 가운데 대축척의 상세한 세계지도로 만들어진 『곤여만국전도』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곤여만국전도』의 조선부분을 비교해 보면 압록강, 두만강의 유로, 조선 팔도의 지명 등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도 8). 한반도의 해안선이 단순하게 묘사된 중국전도보다 일본도의 조선 부분을 보면 『곤여만국전도』의 조선의 윤곽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남해안 섬들의 표현도 유사하다. 일본의 윤곽도 서로 비슷한데 지금의 홋카이도의 모습도 동일하게 묘사되어 있다. 특히 『곤여만국전도』에서는 제주도를 작게 그리고 남쪽에 대마도를 크게 그려 넣었다. 이러한 모습은 마르띠니의 지도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곤여만국전도』를 일차적으로 참고했던 증거가 된다. 따라서 마르띠니의 지도에 나오는 ‘Fungma’는 제주도가 아닌 대마도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대마도를 왜 일본식 발음의 ‘쓰시마나 ‘Tuilatao’와 같은 중국식 발음으로 표기하지 않고 ‘Fungma’라고 했을까? 이것은 한자로 된 ‘對馬’라는 지명을 잘못 읽고 표기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對馬’를 이와 유사한 한자인 ‘封馬’로 잘못 인식해서 지도에 필사했는데, 이후 필사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유사한 발음인 ‘鳳馬’로 표기했다. 마르띠니는 이러한 지도들에서 지명을 참고하여 ‘Fungma’라고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도 9. 「대청일통전도」(1686년), 일본 와세다대학도서관 소장



도 10. 진신전서의 천하총도(18세기 후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이와 관련하여 1686년(강희 25)에 간행된 『增訂廣輿記』에 수록된 중국 지도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 『광여기』는 원래 陸應陽이 간행한 것으로 蔡方炳이 증보하여 편찬했다. 부록으로 『天下地輿全圖』가 수록되어 있는데, 중국 전도가 들어가 있다. 지도의 제목은 「大清一統全圖」로 되어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그려진 지도이다(도 9). 지도의 한반도 동남쪽에는 섬이 크게 그려져 있고 ‘鳳馬島’라는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위치로 볼 때 제주도보다는 대마도를 그린 것으로 보인다. 남해안에 여러 섬이 작게 그려져 있으나 제주도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례는 1772년에 간행된 『摺紳全書』에서도 볼 수 있다.

『진신전서』는 중앙 혹은 지방으로 부임하는 신임 관리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인사의 편의를 위해 작성한 책이다. 여기에 세계지도

가 수록되어 있는데 ‘天下總圖’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다(도 10). 이 지도는 『진신전서』 수록된 지도를 조선에서 그대로 모사한 것이다. 중국 중심의 세계지도로 조선이 크게 묘사되어 있다. 일본은 그려져 있지 않고 대유구인 오키나와와 대만 등이 보인다. 오이 같은 형태의 반도로 묘사된 조선의 남쪽 해안에는 섬을 그려 넣고 ‘鳳馬島’로 표기했다.<sup>10)</sup> 이는 위치를 고려했을 때 제주도보다는 대마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현존하는 지도에서 대마도를 ‘봉마도’로 표기하는 사례가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마르띠니가 중국에서 활동할 당시에도 이와 유사한 지도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마르띠니는 이러한 형태의 지도를 참고하여 ‘Fungma’라는 지명으로 섬을 그려 넣었는데, 나중에 대마도인 쓰시마가 더 그려지게 되면서 ‘Fungma’는 제주도를 지칭하는 지명으로 고착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10) 이러한 ‘鳳馬島’를 표기한 사례는 강희제 때 제작된 지구의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鳳馬島’라는 표기가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만 보기는 힘들다.

#### 4. 18세기 서양 고지도의 제주도

18세기에는 도적섬, 풍마 등 기존의 지명과 더불어 ‘켈파트(Quelpaert)’라는 지명이 나타난다. 켈파트라는 명칭은 네덜란드의 연합 동인도회사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1630년경 동인도 회사에서 선복이 좁고 긴 갈리선을 제작하였는데, 이 배의 이름이 켈파트(Galjodt Quelpaert de Brack)였다. 1642년경 이 선박은 일본을 향해 항해하다가 제주도를 발견하고 측량한 후, 배의 이름을 따서 그 섬을 켈파트라 명명하고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 보고했다. 이로부터 제주도는 켈파트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제주국립박물관, 2001). 이때 보고된 켈파트는 해도에 그려지게 되는데 네덜란드의 유명한 지도학자인 블라우(Joan Blaeu)가 그린 지도에서 볼 수 있다. 블라우는 1649년 양피지에 자바에서 일본 큐슈에 이르는 지역의 해도를 그렸는데, 이 지도의 일본 Cikoko(큐슈 지역) 서쪽 해상에 마름모꼴로 Quelpaert라는 섬을 그려 넣었다(도 11). 이 지도는 현존하는 지도 가운데 켈파트가 표현된 최초의 지도가 되는 셈이다.<sup>11)</sup>



도 11. 1649년 블라우가 제작한 해도  
출처: 한수당연구원 인터넷 블로그

블라우의 해도에 처음으로 그려진 켈파트는 1655년 마르티니와 공동으로 제작한 『신중국지도첩』의 일본지도에도 반영된다. 지도에는 지금의 큐슈의 서쪽, 한반도의 남쪽 위도 33도 근처에 마름모의 형태로 섬을 그려 넣었다(도 7). 그러나 1649년의 해도와는 달리 켈파트라는 지명은 표기되어 있지 않다. 남해안에 제주도에 해당하는 풍마와 또 다른 제주도인 켈파트를 동시에 그린 최초의 지도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실측 자료와 비실측 자료가 서로 혼재되어 제주도가 표현된 것이다.

11) 한상복, 2014, 「1649년 Blaeu가 양피지에 그린 해도의 Quelpaert」  
(한수당연구원 인터넷 블로그, <http://blog.naver.com/hahnsudang/220204595881>).

1653년 제주에 도착한 하멜은 이와 같은 동인도회사의 보고서나 해도를 통해 켈파트라는 섬을 알고 있었고, 일등항해사의 관측(위도 33도 32분)에 의해 그들이 도착한 곳이 켈파트섬을 확인했다. 하멜은 동료 일행들과 조선에서 억류 생활을 하다가 1666년 7명의 동료들과 탈출한 후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 1668년 본국 네덜란드로 귀국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하멜보고서를 바탕으로 1668년 『하멜표류기』가 출간되면서 서양인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제주도는 서양에서 켈파트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sup>12)</sup> 켈파트라는 지명은 이후 네덜란드의 여러 지도에 표기되었고 프랑스의 지도에도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 지도학자 드 페르(Nicolas de Fer, 1646~1720)가 1682년 제작한 중국지도에는 제주도가 켈파트(I. Quelpaerts)로 표기되어 있고 제주시에 해당하는 지역에 ‘Moggan’이라는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도 12). 이 지도는 1682년 P. Duval이 Paris에서 발행한 『La Géographie Universelle contenant. Les Descriptions, les cartes, et le Blason, des principaux Païs du Monde』의 제2권에 수록되어 있으며 하멜 보고서의 우리나라 지명을 수록하고 있다.<sup>13)</sup> 지도의 제주도에 기재된 ‘Moggan(목안)’이라는 지명은 하멜의 보고서에 나오는 것으로 당시 제주목의 성안을 ‘목안’으로 불렀던 데서 유래한 것이다. 지금도 제주도에는 제주읍성 내부 지역을 ‘성안’, ‘목안’, ‘성내’라고 부른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멜표류기』의 기록이다.



도 12. 드 페르의 중국지도(1682년)  
출처: 한수당연구원 인터넷 블로그

- 12) 강준식, 1995, 「우리는 코레아의 광대였다」, 웅진출판주식회사, 20.  
13) 한상복, 2014, 「1682년 발행 de Fer의 중국지도 속 한반도 지명」  
(한수당연구원 인터넷 블로그, <http://blog.naver.com/hahnsudang/220195232254>).

8월 22 일 아침 무렵 우리는 다시 말을 타고 요새를 향해 가다가 아침을 먹었다. 그곳에는 전함 두 대가 있었다. 오후에 우리는 목안(Moggan) 이라는 도시에 도착하였으며, 그곳은 그 섬을 다스리는 목사의 관저가 있는 곳으로, 그들은 주지사를 목사(Mocxo)라고 불렀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자 그들은 우리를 관청 앞마당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우리 모두에게 마실 수 있는 죽을 주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마시는 마지막 음식이며 우리가 곧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무기와 복장이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섭게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곳에는 무장한 병사 약3000명이 중국 혹은 일본식 의상을 입고서 있었는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sup>14)</sup>

이후 1705년 제작된 드 페르(N. de Fer)의 아시아 지도에서도 켈파트(I. Quelpaerts)와 목안(mogan)이 기재되어 있다(도 13). 그러나 여기에는 1682년 중국지도에는 없던 풍마도(I. Fungma)를 추가하여 풍마와 켈파트를 동일한 섬으로 표현했다. 네덜란드의 해도에서 풍마와 켈파트가 분리되어 표현되던 것이 이 지도에서는 하나로 통일되어 표현된 것이다.



도 13. 드 페르의 아시아 지도의 제주도(1705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제주도를 풍마와 켈파트로 표기한 사례는 1705년 제작된 드릴의 지도에서 볼 수 있다(도 14). 드릴(De L'Isle, 1675~1726)은 지도제작에 크게 공헌한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장 도미니끄 카시니(Cassini, 1625~1712)의 제자이다. 그는 경도의 측량을 바탕으로 정확한 지도를 제작하려고 노력한 인물이다. 우리나라는 반도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한강의 하계망이 크게 그려져 있다. 제주도는 이전 시기 지도에서 보이는 'Fungma'와 더불어 'Quelpaerts I.'와 'Citchcou(제주)'라는 지명도 병기되어 있어 그들의 인식이 좀 더 진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하멜표류기』의 간행 이후 이의 정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4) H. 하멜 지음, 신복룡 역주, 2005, 『하멜표류기』, 27-28.



도 14. 드릴의 지도(1705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한편 중국에 파견한 선교사를 통해 최신의 중국지도와 조선지도가 프랑스로 전해져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상세한 중국과 조선지도가 제작되었다. 중국에 파견된 선교사 레지는 강희 연간에 제작된 측량 지도인 중국의 『황여전람도』를 프랑스로 가져갔고 프랑스 왕실의 유명한 지도제작자인 장밥티스트 부르귀농 당빌(J. B. B. d'Anville)은 이를 바탕으로 1732에 「중국령달단전도(Carte Generale de La Tartarie Chinoise)」를 제작했다(도 15). 이 지도는 1735년 선교사인 뒤 알드(J. B. Du Halde)가 펴낸 『중국지지』에 삽입되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지도는 2년 뒤인 1737년에도 당빌이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직접 펴낸 『신중국지도첩(Nouvel Atlas de la Chine)』에도 삽입되었다.

지도의 한반도 부분을 보면 『황여전람도』의 조선지도(도 16)와 윤곽이 동일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의 동남쪽에는 제주도가 그려져 있고 지명은 당시의 삼읍 체제를 반영하여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을 각각 Ki-tcheou, Te-tching, Chan-y로 표기했다. 그러나 『황여전람도』에 없는 'Fongma'를 기입해 넣었다. 북위 33도 부근에는 『황여전람도』의 조선지도에 없는 켈파트가 마름모꼴의 형태로 그려져 있다. Quelpaert라는 지명과 함께 '네덜란드 지도를 따름(Suivant la Carta d'Hollande)'이라는 주기를 첨가하여 켈파트가 네덜란드 지도를 참고하여 그린 것임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채색도 한반도와 동일한 붉은 색으로 하여 한국의 영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할 때, 「중국령달단전도」는 『황여전람도』의 지도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네덜란드에서 제작된 지도들을 참고하여 그렸음을 알 수 있다. 이 지도는 이후 제주도의 인식과 관련하여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15)</sup>

15) 한상복, 2014, 「당빌의 중국령달단전도 속에 있는 한반도와 일본」  
(한수당연구원 인터넷 블로그, <http://blog.naver.com/hahnsudang/220138806887>).



도 15. 『중국령달단전도』의 세부도(1732년)  
원각사 소장



도 16. 『황여전람도』의 조선도



도 17. 당빌의 「조선왕국전도」(1735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한편 1735년 뒤 알드의 『중국지지』와 여기의 지도만을 모아 엮은 1737년의 『신중국지도첩』에는 「조선왕국전도 (Royaume de Corée)」가 실려 있다(도 17). 이 지도는 『황여전람도』의 조선도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앞서 검토한 『중국령달단전도』의 조선 부분과는 차이가 있다. 먼저 남해안의 위도 33도 근처에 있던 켈파트가 빠져 있고, 한반도의 동남쪽에 그려진 제주도에는 ‘Fongma’라는 지명도 없다. 당시 제주의 세 고을인 Ki-tcheou, Te-tching, Chan-y만이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조선만을 독자적으로 그린 「조선왕국전도」는 『황여전람도』의 조선도를 보완 없이 그대로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당빌의 『중국령달단전도』에서 표현된 제주도 인식은 이후에 여러 지도에서 계승되는데 1747년 런던에서 제작된 John Green의 지도에서 볼 수 있다. 1735년 간행된 뒤 알드의 『중국지지』는 1747년 영국 런던에서 『New General Collection of Voyages and Travels』으로 간행되었고 여기에 한반도 중심의 지도가 『광둥, 요동지방, 조선

왕국 지도(A Map of Quan-Tong or Lyau-Tong Province; and the Kingdom of Kau-Li or Korea)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도 18).<sup>16)</sup> 지도에는 『중국령달단전도』에서처럼 제주도가 Fong-ma와 Quelpaert로 분리되어 그려져 있다. 켈파트 지명 옆에는 네덜란드의 해도를 따랐다는 주기도 표기되어 있다. 이 지도는 프랑스에서 1757년 벨랭(Jacques Bellin)이 그대로 번역하여 간행하여 이후 여러 지도에서 활용되었다.



도 18. 『광동, 요동지방, 조선국』(1747년, Green)

당빌의 『중국령달단전도』에서 시작된 두 개의 제주도 인식은 이후 유럽의 여러 지도에서 볼 수 있다. 런던에서 지도를 인쇄, 간행하던 실(Seale, 1732~1785)이 1762년 만든 아시아 지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도 19). 한반도의 윤곽은 당빌의 지도와 유사하다. 당빌의 지도처럼 압록강, 두만강 이북으로 국경선이 그어져 있다. 국호는 'Corea'로 표기되어 있고, 동해는 'Gulf of Corea(한국만)'이라 쓰여 있다. 앞서 벨랭의 지도처럼 남해안의 중앙부에 제주도를 그리고 'Quelparts(켈파트)'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당빌의 지도

16) 한상복, 2015, 「1770년대까지 대표적인 조선지도는 Green이 편집」  
(한수당연구원 인터넷 블로그, <http://blog.naver.com/hahnsudang/220259903746>).



에 그려진 원래의 제주도에는 ‘풍마(Funma)’라고 표기했다. 그들에게 생소한 제주 삼읍의 지명은 없었고 원래 익숙한 풍마와 켈파트만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항해 지도에서도 볼 수 있는데 1797년 제작된 라 페루즈(J. F. La Perouse)의 항해지도가 대표적이다.



도 19. 실의 아시아지도 세부도(1762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라 페루즈는 서양인 최초로 한국의 남해, 동해안을 탐사하여 해도를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라 페루즈 일행은 4년 동안의 세계일주 탐사항해를 위해 1785년 8월 1일 프랑스의 브레스트항을 떠났다. 그들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횡단하면서 주로 자연지리학적인 조사와 해양기상조사를 수행했다. 1787년 4월 10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탐사항해를 위해 마닐라를 떠나 5월 20일까지는 동중국해를 조사하고 계속해서 황해와 조선 서해안을 조사하려 하였으나 해류가 예상외로 강하고 기상상태가 악화되어 이 계획을 포기하고 항로를 북동쪽으로 바꾸어 제주도 남쪽을 거쳐 5월 25일까지 남해를 조사했다. 이어서 5월 27일에는 영일만 북쪽까지 거슬러 올라갔다가 일본을 향해 항진하였고 5월 29일엔 울릉도 주위를 조사하였다.<sup>17)</sup>

17) 한상복, 1988, 『해양학에서 본 한국학』, 해조사, 295-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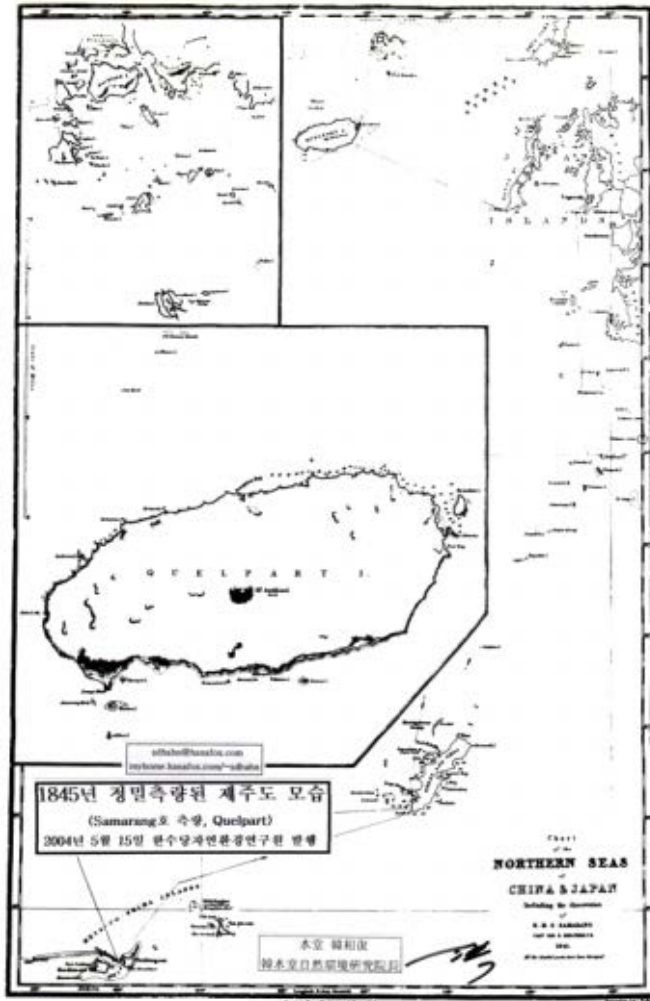
도 20. 라 페루즈의 항해지도(1797년).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라 페루즈 일행은 정확한 위치측정과 함께 수심을 측량하여 기록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도로 평가되고 있다. 그들은 제주도에 접근하여 제주도 남해안의 해안선을 그리고 수심 측량을 했다. 이어 울릉도를 측량하고 배에 동승한 천문학자의 이름을 따서 다즐레섬(Isle Dagelet)으로 명명했다. 이들 탐험의 성과는 1797년 간행된 『라페루즈 항해기』에 수록되었다. 그의 항해기에는 탐험한 지역에 관한 69장의 지도와 그림이 수록되었는데, 우리나라 관련 지도로는 한국이 나타나 있는 43번 지도, 제주도를 비롯한 5개의 섬을 그린 지도 등이 있다.<sup>18)</sup>

그의 한국 근해 탐사도를 보면 남해안의 윤곽이 보다 정교해졌고 제주도와 울릉도의 실측 결과가 지도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도 20). 지도에는 남해안의 해안선 윤곽이 기존의 지도보다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남해안의 섬의 형태는 당빌의 『중국령달단전도』의 것과 유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 동남쪽의 제주도가 『중국령달단전도』에서처럼 Fongma로 표기했고 남해안의 중간 지점에 새롭게 측량하여 보다 정교해진 Quelpaert를 그려 넣었다.

18) 그의 항해기 본문에는 동해가 ‘한국해’로 표기되어 있지만 지도에는 ‘일본해’로 표기되어 19세기 서양지도에서 동해표기가 한국해에서 일본해로 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

## 5. 19세기 서양 고지도의 제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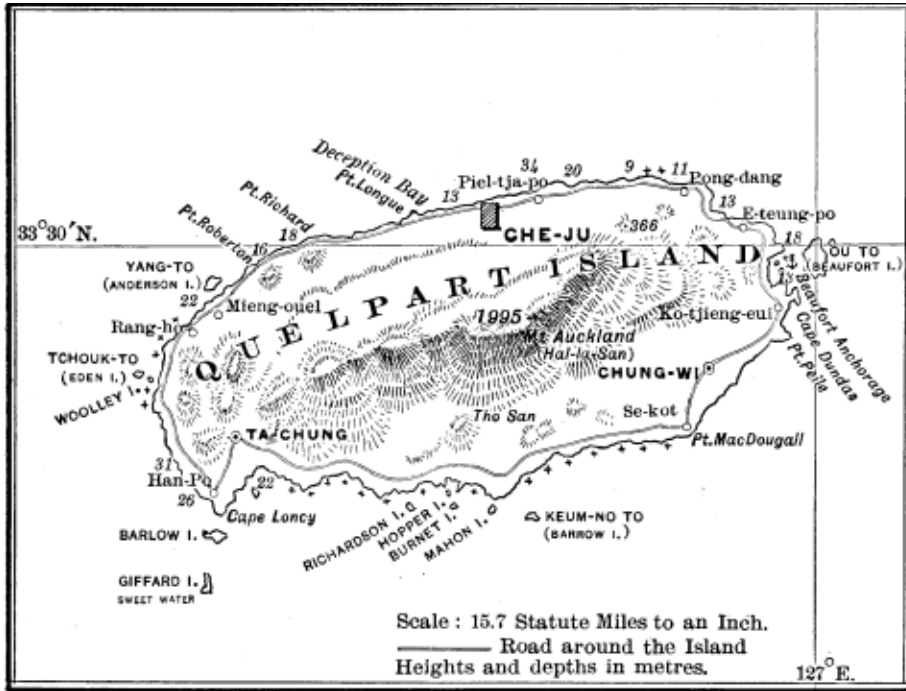
도 21. 벨처의 해도와 제주도 지도(1848년)  
출처: 한수당연구원 인터넷 블로그

기 힘든 한라산이 그려져 있는데, 당시 영국 해군성 장관의 이름을 따서 'Mt. Auckland'로 표기되어 있다.

이 시기에도 탐험을 통해 제주도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켜 나갔는데 대표적인 이가 에드워드 벨처(Edward Belche, 1799~1877)이다. 그는 영국 해군으로 세계 각지의 해안선 측량에 참가했으며 1843년 1월에는 사마랑(Samarang)호를 이끌고 중국의 개항장에 이르는 항로를 정밀 탐사하였다. 그는 홍콩, 유구, 제주도, 일본, 필리핀 등을 조사하고 1846년 영국으로 돌아온 후, 1748년에 『사마랑호 항해기(Narrative of the Voyage of H. M. S. SAMARANG)』를 출간하였다. 제주도에 1845년 6월 25일에 도착하여 우도를 기지로 삼아 약 37일 동안 제주도와 거문도, 거금도 일대를 정밀 측량하고 중국인을 통역으로 대동하여 정의현의 조선인과 의사소통하였다.<sup>19)</sup> 그는 제주도 해안선을 정밀 측량하고 한라산의 높이를 1995m로 계산해 내기도 했다. 한라산의 높이를 정확하게 측정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된다.

그가 그린 지도를 보면 제주도의 해안선 윤곽이 실제와 거의 흡사하다. 제주도는 여전히 켈파트(Quelpart)로 표기되어 있다. 다른 지도에서 보

19) 한상복, 2012, 「1845년 Samarang호의 제주도 해안선 정밀측량」  
(한수당연구원 인터넷 블로그, <http://blog.naver.com/hahnsudang/20154967079>).



도 22. 프랑스 육군 지리조사부 제작 지도의 제주도(1898년)

19세기 말에 이르러는 제주도의 이미지가 더욱 정교해진다. 프랑스 육군 지리조사부에서 제작한 제주도의 지도를 보면 제주도의 지명은 여전히 켈파트섬(QUEL PART ISLAND)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제주, 대정, 정의의 세 고을 명칭이 표기되어 있고, 한라산도 'Mt Auckland'와 더불어 'Hal-la-San'이라는 고유 지명으로 표기되어 있다(도 22). 그 밖에 부속 섬들과 포구, 해안도로와 수심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가파도는 'BARLWO I.' 마라도는 'GIFFARD I.'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이 이채롭다.

## 6. 맺음말

서양에서 제주도의 존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16세기 이후이다. 이 시기 서양과 동양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인식하게 되고 지도에도 제주도가 한반도의 끝 부분에 그려진다. 그런데 이 시기 제작된 몇몇 지도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해당하는 곳에 포르투갈어로 '도적섬(Ilhas dos Ladrões)'이라 표기되어 있다. 1595년 테이세라가 그린 일본 지도가 대표적이다. 원래 '도적섬'이라는 명칭은 마젤란이 1521년 필리핀 동쪽 해상에 있는 지금의 마리아나 제도를 발견하고 붙인 이름이다. 이후 1668년 예수회 선교사들이 당시 스페인의 섭정자인 오스트리아의 마리아나를 추모하여 '마리아나 제도

(Las Marianas)'로 개명했다. 당시 이 지역을 항해했던 포르투갈 상인들이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안, 대마도 일대 해상에서 출몰하는 해적 이야기를 듣고 이를 경계하고자 붙였던 이름으로 보인다.

이후 17세기에 접어들면서 제주도는 '퐁마도(I. Fungma, Fongma)'로 표기된다. 1655년 중국에 선교사로 왔던 마르띠니의 『중국지도첩』에 처음 등장한다. 서양인이 명명한 '퐁마도'는 당시 지식 정보의 네트워크를 고려한다면 중국 지도의 지명을 알파벳으로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 Fungma'의 유래에 대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제주도가 목마장으로 명성이 있어서 퐁마가 '豊馬'에서, 또는 바람과 말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風馬'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지만 실증 자료는 없다. 그러나 현존하는 중국의 고지도 가운데 한반도 동남쪽에 '鳳馬島'라는 표기가 있는 것으로 볼 때 'I. Fungma'는 이 '봉마도'를 알파벳으로 표기하여 제주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표현했다.

17세기에는 '퐁마도'와 더불어 '켈파트(Quelpart)'가 등장한다. '켈파트'라는 명칭은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에서 제작했던 항해용 범선을 일컫는 말이다. 1642년경 이 선박은 일본으로 항해하던 중 제주도를 발견하고 배의 이름을 따서 '켈파트'라 명명한 것이다. 켈파트라는 지명은 이후 동인도회사의 보고서와 해도에 수록되었는데, 1649년 네덜란드의 블라우는 일본 큐슈 서쪽에 해상에 마름모꼴로 켈파트라는 섬을 그려 넣었다. 이후 1655년는 블라우는 일본지도를 제작하면서 제주도에 해당하는 퐁마와 지명은 없지만 켈파트에 해당하는 섬을 그려 넣어 2개의 제주도가 인식되는 단초가 되었다.

제주도를 퐁마와 켈파트 두 개의 섬으로 인식하는 흐름은 당빌의 『중국령달단지도』에서 확실하게 정립되었다. 당빌은 서양 선교사 레지에 의해 중국에서 들여온 『황여전람도』를 바탕으로 1932년 『중국령달단전도』를 제작하였다. 이 지도에는 한반도의 동남쪽에 제주도가 그려져 있는데, 당시 제주도의 세 고을인 제주, 대정, 정의의 중국 발음을 음차한 'Ki-tcheou' 'Te-tching' 'Chan-y' 등의 최신 지명과 함께 'Fong-ma'가 표기되어 있다. 아울러 한반도 남쪽 해상에 네덜란드 지도를 참고한 켈파트 섬을 그려 넣었다. 이 지도는 1735년 뒤 알드의 『중국지지』, 1737년의 당빌의 『신중국지도첩』에 수록되면서 이후 지도 제작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2개의 제주도 인식은 이후 영국이나 프랑스 지도에 반영되고 1797년 라 페루즈의 항해지도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19세기 중반 벨처의 탐험과 같은 실제 탐사의 결과 제주도의 정확한 위치, 면적 등이 알려지면서 이전의 퐁마도와 당빌의 지도에 수록된 'Ki-tcheou' 'Te-tching' 'Chan-y' 등은 사라지고 켈파트 하나의 섬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확립된 켈파트 지명은 20세기 초반에도 여전히 제주를 대표하는 지명으로 사용되었고 지금의 '제주도(I. Cheju)'는 해방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본고는 서양인의 제주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대표적인 지도만을 대상으로 시론적으로 살펴보았다. 제주도 인식의 큰 흐름만을 파악해 본 것인데, 지리정보의 교류라는 측면에서 해석해 본 것이다. 그러나 분석 대상 자료가 많지 않고 다양한 문헌 자료를 검토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차후의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강준식, 1995, 「우리는 코레아의 광대였다」, 웅진출판주식회사.  
국립제주박물관, 2001, 『제주의 역사와 문화』.  
국토지리정보원, 2007, 『외국고지도에 표현된 우리나라 지도 변천과정 연구』.  
김지은·양보경, 2010,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제주의 지명과 형태」, 문화역사지리 22(2), 38-49.  
박대현, 1996, 『서양인이 본 조선 - 조선관계 서양지』, 호산방.  
박대현, 2001, 「서양지도에 나타난 제주의 모습과 그 명칭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 19, 119-167.  
서울역사박물관, 2004, 『Corea, ㅁㅅㄹㄹㄹㄹㄹㄹ』.  
오일환·김기수, 2004, 「18세기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우리나라와 제주도」, 문화역사지리 16(1), 113-122.  
최서면, 1988, 「西洋地圖에 나타나는 濟州島」, 제주도연구 5, 19-23.  
한상복, 1988, 『해양학에서 본 한국학』, 해조사.  
H. 하멜 지음, 신복룡 역주, 2005, 『하멜표류기』.  
한수당연구원 인터넷 블로그(<http://blog.naver.com/hahnsudang>).

### <지도자료>

- 마테오 리치, 1602, 『坤輿萬國全圖』.  
「천하총도」(『摺紳全書』).  
Belcher, E., 1848, 「NORTHERN SEA OF CHINA & JAPAN」.  
Bellin, N., 1748, 「L'EMPIRE DE LA CHINE」.  
Blaeu, 1642, 「CHINA」.  
D'Anville, J. B. B., 1737, 「ROYAUME DE COREE」.  
De Fer, N., 1705, 「LA PARTIE ORIENTALE DE L'ASIE」.  
De L'Isle G., 1705, 「CARTE DES INDES ET DE LA CHINE」.  
La Perouse, J. F., 1797, 「CARTE DES DECOUVERTES」.  
Martini, M., 1655, 「IAPONIA」 in ATLAS DE LA EXTREMA ASIA.  
Martini, M., 1655, 「SINARVM」 in ATLAS DE LA EXTREMA ASIA.  
Teisera, 1595, 「Iaponia Insulae Descriptio」.

투고일: 11월 30일, 심사완료일: 12월 12일, 게재 확정일: 12월 22일